

순창 힐링체험교육 '각광'

기업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지역홍보·다양한 성과 창출 나서

순창군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융합해 추진하는 힐링교육이 기업연수 프로그램으로도 각광 받으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군은 지난해 다양한 '힐링체험교육'을 73회 운영해 2,800여명의 교육생이 순창을 방문 할 만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순창군의 특화 자원이 되고 있는 '힐링체험교육'을 기업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홍보는 물론 다양한 성과 창출에 나서고 있다.



순창군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융합해 추진하는 힐링교육이 기업연수 프로그램으로도 각광 받으면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현대사회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 마음비우기 명상, 편백나무숲 트레킹,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건강요리 실습 등 순창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농특산물직판장 방문, 농장 체험 등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 판매 등과도 연계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저소득 장애인 대상 무료급식

순창군이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없는 순창 만들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지난 20일 순창군 노인장애인 복지관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49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했다. 12월까지 10개월간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진행되며 순창군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순창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주관한다.

이날 장애인 들은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 정성껏 마련한 국, 밥, 반찬 등 6찬의 한끼 식사로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

순창군은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급식

외에도 하루에 4명씩 주2회 자원봉사자 활용 거동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을 추진한다. 또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다.

또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사업을 상시 운영해 지난해 653명의 어려운 이웃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한끼의 식사 해결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가 "배,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올해에도 방제약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도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과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법정 전염병이다.

일단 발병하게 되면 과수원 폐원 후에도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폐기명령을 위반한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생 신청 접수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도 국비지원 여성직업교육 훈련생을 23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며, 전년도에는 총 3개 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생 59명 중 53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3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여성가족부 실사를 거쳐 3개 과정이 개설되며, 이중 멀티사무원 양성과정과 DIY·천연뷰티클래스과정이 3월에 훈련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모집된 훈련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과정별로 20명씩 선발하여 3~4개월간 교육한다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스타일리스트 과정 훈련생을 7월중에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여성새로일센터 김만식과장은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서부터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등 사후관리까지 구직 여성들의 취업과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꿈꾸는 마을 학교' 개강식

7강 21시간 수료

남원시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을활동가를 육성한다.

남원시는 21일 마을 곳곳에서 씨앗단계의 마을 활동가로 활동할 '꿈꾸는 마을 학교' 개강식을 운봉읍사무소에서 가졌다



남원시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을활동가를 육성한다.

꿈꾸는 마을 학교는 지난해 45명을 배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올해는 수강생 77명이 거점마을과 공동체 센터 등 2개소에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교육시간은 총 7강 21시간을 수료하는 과정이다.

꿈꾸는 마을학교는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주민 주도형 공동체 창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씨앗단계의 사전 교육이다. 꿈꾸는 마을 학교에서는 공동체 참가자들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추진될 공동체 사업의 예비 주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수료 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공동체 모습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알찬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장은 또 "시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다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가 여러분들의 독특한 생각과 의견들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임실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경지 면적 증가로 농작업 기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1일 중부(임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작업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상황에 따른 안전수칙을 비롯해 영농철 농기계 보관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농기계사고는 영농철인 5월 ~ 10월 중 야간까지 농작업이 진행되는 오후 5시 이후에 사고발생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사고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평상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작업구간 이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도로주행 시 안전수칙 등을 집중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는 편리하고 능률적이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며 "평상 시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은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 민선 6기 본예산 4천여 시대를 열고 군정 최우선 과제를 함께하는 '희망농업, 든버는 부지농촌' 건설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임실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의 든든한 농사도우미로 자리 잡으며 농촌활력 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과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힘입어 농기계 임대사업이 매년 확대되어 2017년 임대건수가 8,500여건을 웃돌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호응'

임실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실군 읍면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현재 12개 읍면에서 2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임실군 희망복지지원단은 3월 한달동안 각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더불어 살고 싶은 생활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식목일 청원 나무심기

남원시는 23일 조산동 요천변에서 제73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청원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남원시 공무원과 임업후계자협회, 남원산림조합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요천변과 가로화단에 철쭉(자산홍) 8,100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권 주변에서 진행되어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직접 식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관심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338ha에 20여억원을 투자하여 편백, 상수리, 백합, 소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조림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과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통해 녹색도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